

(지난 시즌)

인심 쓴 최하위 팀들 인상 쓴 나머지 팀들

한국전력·인삼공사 샐러리캡 여우
후한 연봉계약...타 팀들 협상 영향

한국전력은 6월 30일 마감된 선수등록 기간에 다른 팀들로부터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었다. 재계약 연봉협상에서 후하게 선수들을 대해주는 바람에 다른 구단들의 재계약협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연봉협상은 정해진 틀이 없다. 선수와 구단의 필요, 감독의 판단에 따라 선수의 가치가 결정된다. 시즌성과 다음시즌 기대치, 구단과 코칭스태프가 평가하는 선수의 역할 등이 모여서 연봉이 정해지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요즘은 예전보다는 차츰 성적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추세다.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에게는 성적이라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기량이 입증된 스타급에게는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운동은 잘하고 볼 일이다. 사실 못하는 선수에게만 더욱 불리한 조건이라면 연봉협상의 공정성이 의심 받는다. 자유계약(FA) 재계약을 앞둔 팀의 주축선수가 부진했다 고 무리하게 연봉을 깎으려는 구단도 없다. 그렇게 하면 초보다. 이직 보상금과 보상선수까지 생각해서 성적과 관계없이 올려주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전력이 이번에 선수들에게 후했던 속사정이 있었다. 팀 내 최연봉 선수였던 서재덕은 8월에 입대한다. 최석기, 권준형, 박성률, 김진만, 이승현, 이재목, 이광호 등이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면서 팀을 떠났다. 고액연봉 선수들이 나가면서 샐러리캡에 한걸 여유가 생겼다. 최소소진율을 고민할 정도였다.

게다가 구단은 지난시즌 최하위 성적이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큰 역할을 해줘야 할 외국인선수가 빠진 가운데 성적부진의 책임을 꼭 선수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또 팀 성적과 관계없이 잘 해준 선수에게는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봤다. 그 생각은 프로페셔널하다. 덕분에 선수들과의 재계약은 쉽게 끝났다.

여자부 인삼공사도 비슷한 선택을 했다. 시즌 최하위를 했지만 선수 어느 누구도 연봉이 깎이지 않았다. 박태수 사무국장은 "지난시즌 성적은 토종선수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국인선수가 부상을 당한 가운데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측면도 있었고 힘들었지만 젊은 선수들이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잘해준 것의 배려차원도 있다"고 했다.

어느 구단 관계자는 "연봉협상의 바탕은 소통이다. 선수와 구단, 지도자의 평가 기준을 선수들이 이해해야 하고 모두가 공정하다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면 만족스러운 연봉협상이 된다"고 했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주짓수에 숨은 과학 원리...몸으로 익힌다”

불법도박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존재다. 특히 PC와 스마트폰으로 무한한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된 요즘, 청소년들까지도 어둠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청소년들 대부분은 건강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스포츠동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케이트와 함께 운동으로 건전한 여가 생활을 즐기는 청소년들을 집중 조명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학교·학원 다니며 정신적으로 지쳐 운동 시작하고 눈에 띄게 체력 향상 선입견? 학부모들 니중엔 더 적극적

경기도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정도관. 합기도와 주짓수 등 종합격투기를 가르치는 이 체육관은 매일 늦은 오후마다 활력이 넘친다. 하루 일과를 운동으로 마무리하려는 청소년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캐시지 안을 수놓기 때문이다.

타격과 조르기 등의 기술이 넘치는 종합격투기와 청소년의 만남. 얼핏 보면 어울리지 않을 조합이지만, 체육관을 찾는 학생들은 저마다 즐거운 얼굴로 운동에 매진한다.

김성태 관장(36)은 “어려서부터 ‘무도’와 관련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많지 않은가. 종합격투기를 찾는 친구들도 그의 연장선상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인천 정도관에서 합기도와 주짓수 등 종합격투기를 배우는 이성현 군, 최강민 군, 최건우 군이 김성태 관장(왼쪽부터)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학생들은 종합격투기를 통해 신체를 단련하며 자신만의 지식을 터득하는 등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다.

다. 이 “학부모들이 처음에는 아무래도 선입견이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체력이 눈에 띄게 느는 것을 직접 보면 오히려 나중에 더 적극적으로 된다. 종합격투기는 기술과 체력적인 면에서 상당히 현대화 되어 있다. 아이들 수준에 맞는 교육이 들어가면 자연히 체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순히 ‘운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니다. 종합격투기를 직접 몸

으로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교과서 속 내용을 확인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중학교 1학년인 이성현 군(13)은 최근 종합격투기 매력에 푹 빠져 있다. 일주일에 5번이나 체육관을 찾을 정도로 애정이 깊다. 수학과 과학을 유난히 좋아할 정도로 공부에 열정이 깊은 이 군은 왜 갑자기 종합격투기에 빠지게 됐을까.

이군은 “처음에는 체중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학교와 학원을 같이 다니면

서 정신적으로 지친 게 있어 운동이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체력 운동을 하면서 체중이 처음 두 달 만에 8kg이나 빠졌다. 그런데 주짓수 같은 기술을 보면서는 과학 원리까지도 쉽게 이해가 되더라. 힘의 작용과 무게 중심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제 갓 청소년기에 접어든 최강민 군(12)과 차건아 군(11)도 종합격투기의 매력을 설명하긴 마냥 자였다. 최 군은 “운동을 열심히 한 뒤 샤워를 하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상쾌하다. 저녁에 잠도 잘 와 다음날 컨디션이 좋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차 군은 “클럽활동으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체육관에서 배우는 것들이 축구에서도 많이 쓰인다. 특히 몸싸움이나 중심 이동 등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종합격투기는 최근 고도의 기술력을 동반한 현대화된 체력 증진 훈련으로 격투 스포츠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더 이상 단순히 ‘싸움’의 요소만이 강조된 스포츠가 아니다.

김 관장은 “아킬레스건을 다쳐 선수 생활을 그만뒀을 때 개인적으로 다짐한 게 있다.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이만큼 건강한 운동과 훈련 방법으로 ‘자기 방어’ 기술을 익히게 하고 싶었다”고 했다. 현대화된 체력 훈련 속에서 자기만의 지식까지 쟁쟁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말 그대로 ‘종합’ 격투기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었다.

인천 |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조보의 회장 “선수 이전에 학생...코트 밖 성장도 돕겠다”

(대한중고배드민턴연맹)

2019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전국학교대학 배드민턴 선수권

“국제대회 나갈 땐 책 한 권씩 선물 현지 박물관 관람 프로그램 계획”

전북 고창군은 야구, 배드민턴, 볼스레이 등 아마추어 엘리트 팀의 전지훈련 장소로 인기가 높다.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스포츠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배드민턴 주니어 국가대표 팀도 매년 고창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전북에서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조보의 대한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은 지역에서 자선사업가로 이름이 높다. 매년 배드민턴 꿈나무들의 전지훈련장을 찾아 지원을 해온 인연으로 지난 5월 제7대 중고연맹 회장을 맡았다.

조 회장은 ‘2019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전국학교대학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전남 화순군에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코트에서 땀을 쏟는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중고교 배드민턴 선수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자선과 선행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졌지만 배드민턴 중고연맹 회장은 명예만큼이나 더 많은 봉사를 해야 하는 자리다. 조 회장은 17일, “고창 출신 배드민턴 선수들이 많다. 주니어 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들을 위한 역할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당시 협회 임원이 아니었지만 대표팀 선수 부모들과 함께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자카르타로 날아갔다. 목표로 했던 순위에 미치지 못하고 탈락한 젊은 선수들을 이끌고 박물관으로 안내했다. 그 때 선수들에게 “주니

어 대표 때부터 수십 개국을 다녔지만 박물관은 처음이다”는 말을 들었다.

조 회장은 “솔직히 조금 놀랐다. 학생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참가하면 일정상 공항, 숙소, 대회장만 오간다. 뛰어난 지도자들이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고 있다. 협회는 또 다른 부분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주니어 대표 선수들에게 해외 대회에 참가하면 박물관을 관람하며 그 나라를 이해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특히 학생 선수들이 어떤 길을 걷든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어 학습 분야에 대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대표 선수들 모두 민간도 외교관이다. 코트 밖에서의 성장을 돕는 게 내 역할이다. 가장 먼저 국제대회에 갈 때 책 한권씩 선물 하겠다”는 말에서 학생선수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묻어났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조보의 대한중고배드민턴연맹 회장은 학생 선수들의 기량적인 발전뿐 아니라 코트 밖에서의 성장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화순 | 김종현 기자 won@donga.com

경기결과

•남자 고등부 단식 3회전=장영준(전주생명) 2-1 박성빈(서울체고), 추진(전광고) 2-0 최상현(매원고), 김동현(월봉고) 2-0 서현경(거창공고), 최광진(매원고) 2-0 김정호(서울체고), 전성호(김천생명) 2-0 강병윤(전남기과고), 이주현(광명고) 2-0 송민호(서울체고), 김해은(월봉고) 2-1 오민규(매원고), 이석현(단진중) 2-0 이세영(군산중), 이만섭(대구고) 2-0 김승연(호원고), 김성재(월봉고) 2-0 하재호(문수고), 최예복(전주생명) 2-0 이윤준(매원고), 이원준(김천생명) 2-0 조우성(인천해원)

(제주사대, 이매지(제주여고) 2-0 김보우(전대사대), 김주형(광주체고), 최광진(매원고), 송해원(영덕고) 2-1 김지웅(웅상고), 이시은(성지공고) 2-1 박승준(남원중), 김나현(전주생명), 구서연(광명북고) 2-1 이은희(광주생명) 2-0 양윤정(제주여중), 조우나(경안중) 2-1 장다혜(양동중), 김민선(남원중) 2-0 장지선(성충여중), 이지현(전주성심) 2-0 이다현(법동중), 노효정(영안중) 2-1 김민정(능곡중), 박나경(중주여중) 2-0 이수민(구암중)

(16일)

•남자 고등부 단식 2회전=김건우(김천여고) 2-1 최예원(장곡고), 이나연(영덕고) 2-0 이다혜(용화고), 정희수(차리고) 2-0 이아름(칠원여고), 윤다현(충주여고) 2-0 이민서(공주여고), 유아연(광주체고) 2-0 김민승(호원중), 김민경(공주여고) 2-0 조민(김천고), 방주영(청양여고) 2-0 박한(제주성심), 김나현(충주여고) 2-0 조혜민(화순고)

●주최: 스포츠동아·동아일보 ●주관: 한국초등학교배드민턴연맹·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한국대학배드민턴연맹 ●후원: 화순군·화순군의회·대한배드민턴협회·전남배드민턴협회·화순군체육회·화순군배드민턴협회